

## 21세기 대학도서관의 정보교육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홍 용 표

### 서 론

밀레니엄 말에 붙었던 사회 전반의 정보화 물결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정보화의 결과로 생겨난 지식과 기술은 오늘날 제일의 상품이 되었으며, 정보와 컴퓨터에 관련되지 않은 직업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 생활과 정보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 주기가 짧아지고 양을 측정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정보가 양산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고민거리에 빠지게 되었다.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는 삶의 풍요와 가치신장에 기여했지만, 정보의 질적 불확실성과 양적 팽창은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을 안겨주었다. 또한 사람들이 정보보다는 어떻게 유용한 정보를 이용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상호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정보의 옥석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산업사회의 핵심이었던 지식과 기술대신에 이를 운영하는 능력과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지나간 20세기가 컴퓨터에 의한 정보화사회라고 한다면 지금의 21세기는 정보교육이 바탕이 된 지식교육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대학도서관은 진부의 긴 잠에서 깨어나서 그들의 존재이유를 재조명해야 한다. 정보 제공이라는 단순한 역할에서 벗어나 그들의 포커스를 사물에서 사람에게 맞춘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사서들 또한 변해야 한다. 새로운 정보기술이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기회를 강요하고 현재의 위치를 위협하더라도 단순한 정보의 중개자로 남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유용한 정보와 필요없는 정보의 선택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용자

들에게 올바른 선택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문제해결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면 더 많은 정보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효율적인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자를 지원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사서들의 새로운 몫이 되었으며, 대학도서관이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선택적 대안은 교육도서관으로의 탈바꿈이다. 본고는 대학도서관에 내재된 그들을 조명하고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를 도모하여, 새로운 교육도서관 구현을 위한 우리들의 발걸음을 찾아보고자 한다.

### 대학도서관의 명암

정보기술은 경제변동과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안정화되면 투자가 활발해지고, 투자의 활성화는 또다른 기술의 창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가 악화되면 당연히 투자와 기술개발은 줄어들고, 새로운 기술의 전이가 늦어지게 되어서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당연히 줄어든다. 대학도서관의 변화 요인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요인과 지역적 다양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요인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80년대에 시작하여 90년대 중엽까지 계속된 세계경제의 호황은 대학도서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 첫번째로, 디지털기술의 개발에 따른 복합도서관<sup>1)</sup>(Hybrid Libraries)등장을 생각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의 웹기반 자원과 메타검색엔진은 도서관서비스에 일대 혁명을 가져와, 인쇄매체의 대학도서관이 안고 있던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다. 두번째는, 대학도서관의 교육기능이 강화되었다. 교육개혁 운동이 학생중심의 학습환경에서 사서들의 교육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사서들은

교육활동에 관한 방법론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고 교육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세번째는, 정보기술에 의한 교육환경의 분산화이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런 제약없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자료를 주제별로 재배치하거나 분실, 분관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침체는 경제의 안정화가 대학도서관에 끼친 영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부작용과 그늘을 남기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의 기금감소는 자료구입비의 삭감이나 축소로 이어졌고, 급속히 상승하는 교육비용은 대학시장의 저항을 가져왔다. 물리적인 신장에만 열중했던 대학도서관이 새로운 수입원이나 저비용 모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도달한 것이다. 더욱이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의한 노동수요의 저하는 노동시장 전체판도를 변하게 했다. 불황기에 회사들이 더 적은 인력으로 똑같은 결과를 얻고자 한 것과 같이 대학도서관 직원들도 동일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갈수록 그 자리마저 흔들리고 있다. 대학조직의 급속한 변모는 기업의 변화보다 파고가 거세고 파장효과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내적인 우리의 자화상을 그려보았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분명히 대학은 교육기관이다. 마찬가지로 대학도서관도 교육기관의 한 부분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은 교육적인 것에 있다. 지금까지 대학도서관은 그들만의 울타리내에서 안주해왔다. 교육적 투자보다는 외형상의 번드르르한 건물신축과 양적 투자에 매달렸고,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전자도서관의 환상속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특징이라고는 거의 없는 똑같은 복제 도서관들이 체인점같이 여기저기 자리잡고서, 가장 최신식의 도서관으로 과대포장되고 있다.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경영학적 마케팅은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상품개발도 미래를 예측한 대응보다는 상황에 따른 이용자의 기호 맞추기에 급급했다. 사회가 변해도 여전히 사서들의 고정관념은 변함이 없고, 기술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기술로 인하여 그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고민하고 있다. 아직

도 우리는 직업의 생존자(Career Survivors)라는 사실에 위안을 삼고 있으며,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없이 졸업하여도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남의 일로 치부한다. Harvard Business School의 마케팅 권위자였던 Theodore Levitt (1975)는 기업이 망하는 주된 이유가 기업존재의 이유를 개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서관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기업에 투자되었던 정보기술만큼 교육기술은 모든 대학들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힘으로 캠퍼스 곳곳에 파고들었다. 정보기술이 산업 전반의 변혁을 촉진시켰듯이 교육기술은 교육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의 주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교통수단으로만 가능했던 세계화가 인터넷에 의하여 거둬 발전되듯이 새로운 기술은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대학도서관 서비스는 봉사가 아닌 새로운 상품으로 교육시장에서 평가받게 되었다. 우리는 정보의 제공자가 아닌 서비스상품의 판매자가 된 것이다. 급속한 환경변화는 항상 기회와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에 드리워진 암울한 그늘은 더 낫은 교육기반을 위한 성장과정에서 파생되었다. 대학도서관이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서비스모델과 업무공정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다.

## 대학도서관의 정보교육

### 1) 정보교육의 의미

Ellingdon (1998)은 교육적 측면에서의 교육은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적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을 습득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임신중의 태교로부터 영유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 사회교육, 직업교육, 평생학습에 이르기까지 일생동안 우리는 다양한 교육을 체험하게 되고 이러한 교육은 삶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왔다. 영국 총리로 재임중인 Tony Blair는 1997년 Birmingham의 한 강연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지식보다 더 귀중한 재산은 없고 배울수록 많이 얻

게 될 것이다. '교육은 곧 나라의 경제번영이다.' 라고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2)</sup> 새롭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보화가 우리 사회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정보화를 대비한 교육은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이라 하였다. 교육지원의 일부분으로서 대학도서관이 정보자원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도서관계에서는 이를 이용자교육(User Education)과 서지교육<sup>3)</sup>(Bibliographic Instruction)으로 불렀다. 초창기의 정보활용능력은 단순히 읽고 쓰고 수치를 해석하는 능력만을 의미했지만, 1989년 미국도서관협회(ALA) 정보교육상임위원회(ALA,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의 한 보고서가 Information Literacy를 "사람들이 정보가 필요한 때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 평가, 확인할 수 있는 능력"<sup>4)</sup>으로 정의하면서 현대적인 정보교육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Lenox (1993)는 "다양한 정보자원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교육을 표현하였고, Jackman (1999)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Information Literacy를 3가지 범주로 표현했는데, 첫째는,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정보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학습자의 힘이고, 둘째는,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발전에 필요한 마음의 습성이며, 셋째는, 개인적, 학술적, 전문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정보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술했다. 또한 정보시스템관리학에서는 정보교육을 정보처리과정의 일반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도서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교육은 영국 출판물에서 서지교육 용어와 혼용하여 쓰이는 말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내에서 정보자원을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도서관의 교육과 개발정책, 자원접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sup>5)</sup>로 정의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정보교육의

개념이 단순한 정보획득을 넘어선 정신적 이론의 토대인 교육방법에 관한 교육으로 확대되면서, 그 의미와 범위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Breivik와 Gee(1989)는 정보폭발이 나라의 기능적 문맹에 대한 과거의 문제를 새로운 위기로 돌렸다고 경고하면서 정보기술을 포함한 정보교육의 재정의를 요청하기도 했다.<sup>6)</sup> 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측면에서 본 정보교육은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서 서지교육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취급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하고, 접근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학습과정을 포함한 서지교육의 확장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필자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개념과 정의를 종합할 때, 정보교육을 '인간이 지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정보교육의 목적

교육이 산업사회의 원동력이고 정보화사회의 중추였다면 지식교육사회에서의 정보교육은 사회 자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미 영국은 컴퓨터 보편화사회를 대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1970년대부터 부처간 협력을 통한 국책사업으로 정보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sup>7)</sup> 비록 이것이 정보기술인 IT위주의 사업이었지만,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보처리, 통신, 모델링, 제어계측의 활용과 이해 등을 강조하고, 범교과목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한 점에서 국가주도의 대표적인 정보교육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교육부에서 발간한 1993년 국가성인교육보고서(The 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에 따르면 미국성인의 21~23%에 해당하는 400~440만 명의 사람들이 산문능력에서 최저 등급을, 4명 중 1명은 문서감각에서, 5명 중 1명은 수치해독 능력에서 최저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최고 수준에 있는 성인 4%가 최저수준에 있는 성인 43%보다 2.5배를 더 벌어들이고 있으며, 산문능력에서 최저를 나타낸 45%의 사람들은 과거 5년 동안 지방선거나 총선거에서 한번도 투표를 하지 않

2) Ellingson, Jo Ann (1998), p.53.  
 3) Mohundro, Jenny Lynn (1999), p.2.  
 4) <http://www.ucalgary.ca/library/ILG/litdef.html>  
 5) 앞의 책, p.8  
 6) 앞의 책, p.13

왔다는 것이다.<sup>8)</sup>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보를 활용하는 기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과 동기를 갖게되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은 곧 경제적 안정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도서관의 교육적 의미로 생각할 때, 최저수준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일정한 정보교육만 받았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다.

정보교육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정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Yale 대학 도서관은 도서관교육프로그램은 1) 정보와 정보자원, 시스템을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2) 학습과 연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며, 3) 정보자원과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sup>9)</sup>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Louisville대학 도서관은 정보교육의 목적이 자원과 교과목간의 차이(gap)를 없애는 것<sup>10)</sup>이라고 했고, Salem주립대학 도서관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수준을 경험하게 하여 평생학습자로서 남는데 필요한 기법을 가르치는 것<sup>11)</sup>이라고 했다. 뉴질랜드 Dalhousie대학의 교수인 Julien Heidi (1998)가 뉴질랜드 지역의 이용자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도서관사서들은 이용자교육의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구조와 최신 기술 정보의 인지교육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택했다. 그밖에도 이용자교육의 목적이 '개인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 즉 사서들에게 덜 의지하여 이용자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시키는 것'과 '되풀이되는 똑같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도록 질문을 줄인다'는 것과 같이 미리 제시된 항목이외에 나타난 답변들도 정보교육의 목적을 잘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도서관의 정보교육은 대학도서관 서비스 전개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만약 도서관이 교육역할을 하지 않으면 대학내의 다른 부서나 상업회사들이 역할을 대신할 것이고, 그들은 공적인 활동으로서 교육을 제공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교육비용을 계산하면서 정보의 소유자와 비소유자와의 격차를 확대할 것이다.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가 될 것이다.

### 3) 정보교육의 과정

지금까지 대학도서관은 대부분 내부 이용자만을 한정하여 정보기술 및 정보기기의 기초적인 교육만을 제공해왔다. 교육방법도 '이곳이 도서관이다'와 같은 일반적 오리엔테이션 중심의 교육이었으며, 교수나 학생들과의 협력이나 연계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되어 왔었다.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교육기능으로서 대학도서관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Stoffle (1998)는 "대학도서관의 서비스는 교과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도서관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교육도서관(Teaching Libraries)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인프라구조(Infrastructure)의 이해와 상호작용, 인프라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공공정책의 이해까지 포괄한 정보기술교육(Information Technology Literacy)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서관의 교육프로그램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up>12)</sup> 뉴질랜드 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 이상이 기술변화가 도서관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했으며, 21%만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기술변화가 정보교육을 향상시켰다고 보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의 이용자교육이 이전보다 향상되어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대학도서관 내부적으로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방법이 연구되었고, 교육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던 곳이나 정보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던 ALA연례회의에서는 사람들이 직업, 교육, 지역사회, 정부, 가족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7) 정성무(1995), p.87.

8) Ellingson, Jo Ann (1998), p.53.

9) <http://www.library.yale.edu/instruction/instruct.html>.

10) <http://www.louisville.edu/infoliteracy/philosophy.htm>.

11) <http://www2.shore.net/~mia/definition.html>.

12) Stoffle, Carla J (1998), p.47.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교육 체계수립을 위해 사서와 지역조직을 연계한 새로운 정보교육체제를 발족시켰으며,<sup>13)</sup> 미국내 지역도서관의 약 61.7%는 우리의 검정고시 제도와 같은 GED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도서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sup>14)</sup>

교육기술과 교육방법 측면에서도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강의실 교육이 주를 이루었던 교육은 워크숍, 참여교육, 과제물교육, 온라인설명회, 그룹토론, 퀴즈, 보고서제출 형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또한 웹기반 중심의 도서관교육은 교과과정내에 학문강좌로 이어지고 있는데, York (Pa.) College의 경우는 정보교육을 필수 학점과목으로 지정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sup>15)</sup> 많은 다른 대학들이 학점이나 강의형식, 필수나 선택과목으로 정보교육을 교과목과 통합한 형태로 운영 중에 있다. Yale대학의 경우는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직원에 사서뿐만 아니라 교수, 강의조교, 교육 및 학습개발 담당 행정전문가를 포함시켜서 신입생 탐방코스, 분야나 주제별 특강, 수업관련 교육과정, 개별상담의 형태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16)</sup> Wayne대학의 과학도서관은 빠른 시간내에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한 비서, 연구보조원, 정보수집가를 대상으로 30분 정보클리닉(Half-hour Information Clinics)이라 불리는 미니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정보를 찾는데 걸리던 시간이 많이 절감되었다고 한다.<sup>17)</sup> 또한 Arizona (Tucson)대학에서는 여성과 서구문화(Women and Western Culture)라는 Listserv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주제별로 자원을 찾고, 그 자원을 Listserv에 기록하도록 하는 독특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sup>18)</sup> 교육기능을 앞서서 수행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의 특징은 대개 교과목연계나 교과목통합형태의 수업중심 교육이며, 학기중일 때와 더불어 방학중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도서관교육은 어떤 것인가? Dewald (1999)는 도서관교육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을 때 효과적이라고 한다.

- 도서관교육은 교과과정이나 과제물에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가 크다.
-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습방법이 강의자 혼자 진행하는 방법보다 효율적이다.
- 도서관교육의 공동학습에서는 사서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 많은 정보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도서관교육은 교육목적을 명확히 해야한다.
- 도서관교육은 역학(Mechanics)이 아닌 개념(Concepts)을 교육하는 것이다.

Rader (1997)는 “전자정보의 끊임없는 성장은 도서관과 사서가 모든 유형의 정보요구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켰다”고 한다. 교과과정내의 정보교육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 가상대학과 가상도서관상의 교육방법 등도 이제는 논의되고 연구될 시점이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도서관의 정보교육을 원하는 새로운 고객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서관에서의 정보교육 성공여부는 모든 지역에서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열쇠가 될 것이다.

#### 4) 정보교육자로서의 사서

도서관이 정보화되기 이전에 사서들은 이용가능한 정보에 대한 선택, 조직, 접근점 제공 등이 주된 역할이었다. 그러나 도서관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정보량이 증가하고 복잡해지면서 사서들의 역할은 많이 변화되었다. 사서들은 책의 관리자에서 정보의 관리자, 단순한 Database검색자에서 정보자격을 갖춘 강의자로, 정보의 중계자에서 정보의 분석가이자 평가자로 역할이 바뀌었다. 사서들은 새로운 학문과 지식의 창조를 위해 정보를 이용, 접근, 분석, 평가하는 방법 등을 알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을 돕는 최

13) 앞의 책, p.46.

14) Mohundro, Jenny Lynn (1999), p.2.

15) <http://www.ycp.edu/library/ifl>.

16) <http://www.library.yale.edu/instruction/instruct.html>.

17) <http://www.libraries.wayne.edu/sel/ed.html>.

18) Herro, Steven J (2000), p.557.

고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교육기능이 강화되고 사서들의 교육역할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이제 사서들의 역할은 평생교육의 비평적 사고능력을 가르치는 조정자로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식교육사회에서 사서들이 강의자로, 교육자로, 조정자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교육공학 적 방법론 등을 익혀야 할 것이다. Latham (2000)은 사서들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기술로 워드프로세서 같은 사무용 프로그램, 웹브라우저, E-mail, Windows, 필수적인 네트워킹 기술, 기본적인 컴퓨터 진단 등을 들고 있다. 정보기술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서들이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이 앞서서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면 사서들은 적절한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이용자요구와 학습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를 끊임없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교육자격을 갖춘 유능한 사서는 1) 필요정보를 인지하고, 2) 유용한 연구주제나 질의를 정의하고, 3) 다른 출판물 형태나 형식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4) 다양한 정보자원과 기술을 이용하고, 5) 좋은 정보자원을 발견하고, 6) 정보의 효율적 검색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7) 검색전략, 정보자원, 정보검색 평가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서들의 교육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미국 Michigan 주의 정보교육상(Information Literacy Award)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 상은 도서관에서 특별히 교육활동에 기여한 사서를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있다. 후보자는 교육프로그램의 실행과, 교육과 관련한 조직 내의 리더십, 도서관에 영향을 준 교육연구 저작물, 지식공유를 위해 계획된 전시능력 등에서 한가지 이상 적합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 상을 수상한 사람은 Miriam Dudley같은 국가교육상 후보로도 올라가게 된다.<sup>19)</sup> 사서가 교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환경은 이미 조성되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자가 되기 위한 사서들의 마음가짐과 노력뿐이다. 앞으로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다음과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적절한 정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수와 밀접하게 연계한다.

- 교과목연계나 교과목통합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교육, 연구기관이나 교육전문가들과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한다.

- 체계적인 방법으로 업무의 연구자가 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한다.

- 지역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평생교육의 장을 조성한다.

- 학생들을 위한 개별연구 이용지도를 제공한다.

- 원격자원과 원격교육의 접근 가능법을 부단히 개발한다.

- 강의실교육을 웹기반 중심교육으로 전환한다.

- 정보의 분석과 평가능력 향상을 위해 비평적 사고능력을 교육한다.

## 결 론

대학도서관은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다. 비용성과 편리성, 폐쇄와 용이한 접근, 보존과 이용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교육가치에 대한 자신감으로 기술과 교육지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부단히 연구해 왔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환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또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변화를 요구받으면 '대학도서관은 아주 양호하고 재정적으로도 괜찮은데 왜 변해야 하는가? 변화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변화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항상 반문하면서도 결국은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Breivik와 Gee (1989)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은 퇴색된 개념으로 변하는 시대에서 부단하게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까지 표현했다. 도처에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이 늘어만 가는데도 우리는 언제까지 팔장만 끼고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할 것인가? 갈수록 대학도서관의 위상은 추락하고 사서들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 이제 대학도서관이 생존할 수 있는 선택적 대안은 교육도서관이다. 우리들은 새로운 역할과 업무과정을 개발하고

19) <http://www.mla.lib.mi.us/Forms/ILRT.htm>.

우리들의 인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를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도전은 곳 시작이다. 우리는 전략과 목적이 갖추어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이 어떤 요구에 대처하는 것이 전략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는 우리들의 목적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정성무(1995). 영국의 정보교육 동향과 그 시사, <교육개발>, 제98권, 85-91.
- 2) Breivik, Patricia S (1989). <Information Literacy: Revolution in the Library>, E Gordon Gee<joint author>, (Greenwood Publishing Group).
- 3) Dewald, Nancy H (1999). Transporting good library instruction practices into the web environment,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25, no.1, 26-32.
- 4) Dugdale, Christine (1999). Managing electronic reserves: new opportunities and new roles for academic librarians? *Librarian career development*, v.7, no.12, 150-163.
- 5) Ellingson, Jo Ann (1998). 21<sup>st</sup>-century Literacy: libraries must lead, *American libraries*, no.4, 52-53.
- 6) Herro, Steven J (2000). Bibliographic instruction and critical thinking,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43(6): 554-558.
- 7) Jackman, Lana Webb (1999). Information literacy: an issue of equity for new majority students. (Lesley College, Ph.D.).
- 8) Julien, Heidi (1998). User education in NewZealand tertiary librari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24, no.4, 304-314.
- 9) Latham, Joyce (2000). The world online: IT skills for the practical professional, *American libraries*, v.31, issue 3: 40-42.
- 10) Lenox, Mary F, Michael L. Walker (1993). Information literacy in the educational process, *The educational forum*, 57(2): 312-314.
- 11) Levitt, T. (1975). Strategic innovation in established companies. *Sloan Management, Marketing myopia*. Harvard business review, 53(5): 2G37.
- 12) Mohundro, Jenny Lynn (1999). The effectiveness of bibliographic instruction on reducing library anxiety in GED students at a community college (Texas A&M University, Ph.D.).
- 13) Rader, Hannelore B (1997). Library instruction and information literacy-1996, *Reference services review*, v.25, no3-4, 103-104.
- 14) Stoffle, Carla J (1998). Literacy 101 for the digital age. *American libraries*, December, 46-48.